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하시고 전군지휘훈련진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 높이고 작전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함으 검토하시였다.

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로씨 철저한 전쟁준비태세와 군사적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29일 응능력을 빈틈없이 갖추는데 목적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두고있다.

방문하시고 전군지휘훈련진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지휘소에서 단계별정황에 따르는 적군과 아군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과 정찰총국장이 예상행동기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영접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대한민국》군부깡패들이 조선민주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수들의 불의 군사대상물들, 사회정치, 경제적혼란사 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면전쟁을 가상 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태를 련발시킬수 있는 핵심요소들에 대한 도발적성격이 짙은 위협천만한 대 반공적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한 동시다발적인 초강도타격을 가하며 구모련합훈련을 벌려놓은 상황에 대 령토를 점령하는데 총적목표를 둔 다양한 타격수단에 의한 부단한 소량 연습참모부의 기도와 그를 관철하기 전과 전선공격작전, 적후에서의 배후교 위한 각급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란작전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배 지휘관, 참모부들의 작전조직과 지휘 부들의 작전계획전투문건들을 료해 함적용하여 전략적주도권을 확고히 틀 능력을 판정검열하고있다.

훈련은 전군의 모든 지휘관, 참모부 포병리용계획과 적후전선형성계획, 해외무력개입과탄계획 등 총참모부의 힘이 전시체제이전때 행동질서에 숙련 해외무력개입과탄계획 등 총참모부의 하며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보다 실제적인 작전계획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작전 초기에 적의 전쟁잠재력과 적군의 전쟁 지휘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

휘통신수단들을 맹목시켜 초기부터 기

를 꺾어놓고 전투행동에 혼란을 주며

적의 전쟁수행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키

는데 최대의 주목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적들의 중추적인 군사지 휘거점들과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 중요 군사대상물들, 사회정치, 경제적혼란사 태를 련발시킬수 있는 핵심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초강도타격을 가하며 다양한 타격수단에 의한 부단한 소량 전과 전선공격작전, 적후에서의 배후교 위한 각급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란작전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배 함적용하여 전략적주도권을 확고히 틀 어질데 대한 문제, 특히 적의 그 어떤

포병리용계획과 적후전선형성계획, 반작용으로부터도 타격수단들을 철저히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한 문제, 작전지휘체계와 화력지

휘통신방식을 전면갱신할데 대한 문제 반공화국침략기도의 여지없는 폭로 등 앞으로의 작전조직과 지휘, 전쟁준 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에 철 비에서 인민군대가 견지하여야 할 전면 저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적인 과업들과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을 강조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성된 국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대 안전환경과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전은 두뇌전의 대결이라고 하시면서 전 군대의 작전지휘훈련과 실동실전훈련

쟁에서의 승패여부는 싸움에 앞서 지 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

지시를 포치하시면서 전쟁준비를 보다 지휘관들의 전투적신심과 전쟁관 령기응변하는 만능싸움군, 당당한 은 더욱 백배, 투철해졌으며 전쟁 실력가들로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준비에 보다 박차를 가함으로써 김정은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 언제든 적들을 무자비하게 괴멸시 키고 남반부 전 령토를 평정할 멸적의 주한 군사적움직임과 빈번히 행해지는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확대된 각이한 군사연습들은 놈들의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해군절에 즈음하여 8월 27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영웅한 인민해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해군사령부에 도착하시자 해군장병들은 뜻깊은 자기의 창립명절에 무상의 영광과 특전을 받아 안게 된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을 영접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해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 전체 해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충성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해병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해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사령부 축하방문을 기념하여 해군무력의 주요지휘관들과 건군사에 길이 전할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부대군인회관에서 해군장병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체육경기를 하게 된 선수들과 응원자들의 회열과 랑만이 경기장에 차넘치였다.

군종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의 강한 승부심과 열기면 응원 속에 시종 치렬하게 진행된 경기에서는 해군팀이 공군팀을 이겼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장병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전세대대의 위대한 해병정신을 굳건히 이어 사랑하는 내 조국의 바다를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있는 미더운 해군장병들을 따스이 고무해주시였다.

전체 해군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해군절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해군의 영웅한 장병들에게 보내는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경의가 담긴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사나운 파도에도 추호의 변침을 모르는 신념의 조라를 역세게 틀어쥐고 충성의 항로를 이어온 조선인민군 해군의 성스러운 70여성상에 송고한 경의를 표하시고 우리 당의 해군중시사상과 해군무력을 무적필승의 군종으로 장성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문제들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의 전체

장병들이 일치단결하여 주체적해군무력발전의 최진성기를 반드시 열어나가는 리라는 믿음을 표명하시면서 영웅적 인민해군의 강대성을 계속 높이 떨치고 그 영예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용감히,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해나가지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사령관의 안내를 받으시며 작전지휘소를 찾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사령관으로부터 적정보고와 해군의 작전상황을 보고받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작전지휘소의 여러 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작전

지휘 및 정황관리정보화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사령관으로부터 해군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당중앙의 전략전술적기도에 맞게 그 어떤 불의의 무력충돌사태와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공세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추축하기 위한 주체적해군작전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작전지휘소를 돌아보신 후 해군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해군팅과 공군팅사이의 배구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오메에도 그리며 뵈고싶던 경애하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각별한 사랑과 혈연의 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국가방위의 전초병, 바다의 맹장들로 더욱 역세게 준비해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짐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사령부에 대한 축하방문을 마치고 김정은 원수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최대의 경의를 담아 환송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에 대한 축하방문은 해군무력강화의 획기적전환의 중대한 이정표로 주체적혁명무력건설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해군절경축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절에 즈음하여 8월 27일 저녁 경축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연회에는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인 김명식해군대장과 정치위원인 김창국해군중장을 비롯한 해군사령부 군정지휘관들과 해군 동, 서함대장들, 관하 수상 및 수중함선전대장들과 특수작전부대 지휘관들이 초대되였다.

조용원,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였다. 연회에서는 박정천 조선인민군 원수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뜻깊은 해군절에 해군사령부를 축하방문하시고 온 하루를 해군장병들과 함께 보내시며 백전필승의 기상과 힘을 새롭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의 세계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언급하시였다.

그는 한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오늘의 행복한 시간들에는 해군의 장병들 모두가 조국과 인민이 자랑하는 애국

용장, 승전의 영웅들이 되기를 바라는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하면서 전체 지휘관들이 총결기하여 당중앙의 영웅한 결사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해군이 공화국의 중추무력, 핵심군종으로서 승리의 항로를 즐기차게 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김정은 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고 미덥고 끝끝한 해군의 지휘관들과 정깊은 말씀을 나누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우리의 국권과 국위를 침탈하려는 적대세력들과의 가장 격렬한 대결장에서 쟁취한 승전을 우리는 더 순결하게 더 당당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투철한 해병정신이 신성한 령해를 굳건히 지킬 때 조국의 바다는 평온하고 이 땅의 모든것이 불멸의 영예와 값진 재부로 빛을 뿌릴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연회장에는 부국강병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뜻과 정, 생사를 같이하는 위대한 령장과 해군무력의 핵심골들의 혈연적유대를 전하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송엄히 펼쳐졌다.

해군지휘관들은 받아안은 오늘이 사랑과 믿음을 한생의 영광으로 간직하고 우리 국가, 우리 군대의 불멸의 명성과 더불어 빛나는 공화국해군의 휘황찬란한 전도와 끊임없는 장성강화를 위하여 일심분투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태양의 품에 안겨 빛나는 삶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이 비전향장기수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지도 벌써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비전향장기수, 그들은 수십 년간이나 피외지역의 철창속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당과 수령,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혁명적지조를 지켜싸온 통일 애국투사들이다.

손발을 얽어맨 철쇄와 높디 높은 감옥의 담벽은 그들의 생사여부에 대한 소식조차 끊어버렸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예타게 기다리던 가족들마저도 그들과 다시 만나는 것을 단념하였었다.

그러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은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싸온 비전향장기수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계셨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일군들에게 30년, 40년 옥중투쟁을 하면서 전향하지 않은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혁명가들속에서만 나오었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오는 문제를 혁명의 길에서 우리 당을 받들어 싸운 동지들에 대한 혁명적리론 여거며 혁명의 랑도자가 전사들에게 베풀어야 할 고귀한 사랑으로

간주한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이러한분이스기에 비전향장기수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수많은 조치들을 취해주셨으며 주체89(2000)년 6월에는 이 문제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한 조항으로 크게 명문화하도록 하시었다.

하늘도 감복할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의하여 주체 89(2000)년 9월 2일 마침내 한 두사람도 아닌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한낱한시에 곁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길수 있었다.

지금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20여년전 민족의 장한 아들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백리연도에 꽃바다를 펼쳐고 《축하합니다!》, 《장합니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소리높이 웨치던 환영군중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오는 듯하다. 세계언론들이 대서특필한바와 같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국에로의 귀환은 《지구행에서 락원행에로의 인생전환》이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자애로운 환포에 안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기 며칠전인 주체 89(2000)년 8월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은 모두 애국자, 혁명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조국의 품에 안기면 조국통일상도 수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도, 새 당원증도 안겨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창밖으로 별무리가 반짝이는 밤하늘을 한동안 주시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들이 세운 위훈이 저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비전향장기수들이 돌아오면 즉시 조국통일상수여식을 만수대의사당에서 국가행사로 크게 하라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한낱한시에 조국통일상과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 받게 되었다.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믿음은 이분이 아니었다.

0.75평의 감방에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절을 짓밟힌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가장 훌륭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었다.

처음 일군들은 비전향장기수들이 평양시교외의 어느 풍치좋은 산기슭에 자리잡고 살도록 할 생각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둡고 고독을 제일 싫어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심리까지 헤아리시어 아늑한 곳이라 하여 그들을 조용한 교외에 자리잡게 해주시었다.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이 세상 제일가는 보금자리를 마련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최상으로 우대해주고 근심걱정이 없도록 살수 있도록 온갖 사랑의 조치를 다 취해주셨다.

백발로총각신세를 면할수 없었던 비전향장기수들을 친 부모의 심정으로 결혼상의 신랑으로 앉혀주시었고 70, 80, 90톤 생일을 맞는 전사들에게 생일상도 안겨주시었으며 철따라 새옷도 지어주도록 하시었다. 또한 고급화장품과 지팡이, 안경까지 보내주시었다.

진정 비전향장기수들이 입고 쓰고 덮는 모든것에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손길과 따뜻한 온기,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 없다.

주체91(2002)년 여름, 수십년세월 철창속에서 신음하던 비전향장기수가 조국의 품에 안겨 꽃같은 딸자식을 보고 딸애의 이름을 지어주시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편지를 삼가 드려왔을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까지

들이 불비고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차넘치는 수도의 한복판에서 수십년간 생사운명을 함께 한 동지들과 그림던 인민들과 때일이 어울리며 조국의 벽간 속결을 느끼고 살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비전향장기수들은 수도의 중심부에 있는 행복의 보금자리에 삶의 맛을 내리게 되었다.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이 세상 제일가는 보금자리를 마련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최상으로 우대해주고 근심걱정이 없도록 살수 있도록 온갖 사랑의 조치를 다 취해주셨다.

백발로총각신세를 면할수 없었던 비전향장기수들을 친 부모의 심정으로 결혼상의 신랑으로 앉혀주시었고 70, 80, 90톤 생일을 맞는 전사들에게 생일상도 안겨주시었으며 철따라 새옷도 지어주도록 하시었다. 또한 고급화장품과 지팡이, 안경까지 보내주시었다.

진정 비전향장기수들이 입고 쓰고 덮는 모든것에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손길과 따뜻한 온기,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 없다.

주체91(2002)년 여름, 수십년세월 철창속에서 신음하던 비전향장기수가 조국의 품에 안겨 꽃같은 딸자식을 보고 딸애의 이름을 지어주시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편지를 삼가 드려왔을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까지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심미리에국립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어 그들의 삶을 조국이 알고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주셨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최고 화신이시며 혁명전사들의 운명의 태양이시었다.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적 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자신께서는 위민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면서도 비전향장기수들에게는 동해명승 송도원과 천하절승 금강산에로의 탐승길을 마련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중요행사들에 비전향장기수들이 대표로 참가하도록 최상 최대의 특전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헤메이던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겨 조국통일장군님께서 백년제 생일을 맞이하였을 때에 는 은정어린 생일상도 보내 주시었다.

참으로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국에로의 귀환과 그들이 지난 20여년간 받아안은 영광과 행복은 위대한 태양이 있어 혁명전사들의 삶을 빛낸다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 주고있다.

뜻깊은 국가적명절과 기념 일들을 계기로 승업한 마음으로 국가계양식에 참가할 때마다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이

필력은 그 기발아래서 인민은 영웅인민으로 자랐고 조국은 젊음과 힘이 넘치는 불멸의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우리의 국기는 오늘도 힘있게 펴리고 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이 하늘가에 높이 날려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센 승결을 더해주시는 랑홍색기발, 목숨처럼 소중한 그 기록에 인민은 자기의 꿈과 리상, 운명을 실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위인 중의 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랑홍색 공화국기발은 세기를 이어 빛나고 창공높이 더욱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지난 7월, 경사스러운 전승결정축의 열병광장에서 승업히 울리는 국가의 구절은 나직이 따라 부르시며, 창공높이 오르는 우리의 공화국기를 바라보시며 뜨겁게 눈물 지으시던 절세위인의 기록하신 모습은 우리 공화국이 무엇으로 그토록 성스럽고 강대한가를 만사람에게 다시금 뜨겁게 각인시켰다.

절세위인의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애국의 세 계는 온 나라 인민을 감동시키며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주고있다.

뜻깊은 국가적명절과 기념 일들을 계기로 승업한 마음으로 국가계양식에 참가할 때마다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이

필력은 그 기발아래서 인민은 영웅인민으로 자랐고 조국은 젊음과 힘이 넘치는 불멸의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우리의 국기는 오늘도 힘있게 펴리고 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이 하늘가에 높이 날려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센 승결을 더해주시는 랑홍색기발, 목숨처럼 소중한 그 기록에 인민은 자기의 꿈과 리상, 운명을 실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위인 중의 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랑홍색 공화국기발은 세기를 이어 빛나고 창공높이 더욱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지난 7월, 경사스러운 전승결정축의 열병광장에서 승업히 울리는 국가의 구절은 나직이 따라 부르시며, 창공높이 오르는 우리의 공화국기를 바라보시며 뜨겁게 눈물 지으시던 절세위인의 기록하신 모습은 우리 공화국이 무엇으로 그토록 성스럽고 강대한가를 만사람에게 다시금 뜨겁게 각인시켰다.

절세위인의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애국의 세 계는 온 나라 인민을 감동시키며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주고있다.

람홍색국기를 바라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주체52(1963)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공화국공민이 될수 있는 사람,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 및 그로부터의 제적, 그 원칙과 절차, 공화국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치적 및 법적보호를 규정하고있다.

이 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공화국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가졌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절차로 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 공화국공민들간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또한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 자녀들,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자,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자들도 공화국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으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은 공화국으로 귀국하거나 자유로이 오갈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주체111(2022)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려일어 조국의 통일발전과 통일전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총련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주체56(196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대의원선거에서 한덕수장장을 비롯한 총련중앙 일군들과 상원 1명, 조선대학과 동 산학단체인 일군 7명이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이것은 공화국창건후 처음으로 되는 일로서 재일동포들의 생활

존엄높은 해외교포단체로서의 긍지를 떨치기 위해

—총련에서 음악무용대 공연 《우리의 국기》 준비사업 활발히 진행—

공화국창건 75돐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재일동포사회가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바쁘고있다.

총련에서는 공화국창건 75돐을 동포사촌에 위인정중의 열기가 끓어넘치고 어머니

조국을 끝까지 따르는 열렬한 애국심이 분출되는 양양된 분위기속에서 성대히 경축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음악무용대공연 《우리의 국기》준비사업도 그중의 하나이다.

대공연은 영광스러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절세위인들의 건국업적과 절세위인들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혈연의 정, 어머니 조국을 우리리에 애국애족하여온 동포들의 투쟁의 삶을 되새기며 주체예술의 자랑찬 화폭으로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단체로서의 긍지를 더욱 뚜렷이 과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대공연은 그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동포사회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이게 하며 민족문화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도 중요한 계기로 된다.

공연에는 금강산가극단과 조선가무단을 비롯한 전문예술인들은 물론 문예애호가들, 공연참가를 희망하는 각종 조직, 단체에 속한 동포들과 학생들 다 참가하게 된다.

지금 총련에서는 대공연준비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다.

지난 4월 음악무용대공연을 위한 실행위원회가 조직된데 이어 여러 차례에 걸쳐 공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공연에 참가하는 예술단체



무용 《모란봉의 봄》

조국의 전진에 발걸음을 맞추어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해 언제나 마음세오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련이 지부를 거점으로 동포들의 권리옹호운동을 중심적위치에 놓고 대중운동을 벌려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총련에서는 민족적권리운동을 비롯하여 동포생활향상과 상부상조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운동들을 제

일동포들의 지향과 생활상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힘있게 벌리였으며 이것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고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총련의 주체적애국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동포들찾기운동에 전조직적인 힘을 넣으며 이 운동을 다양한 민족문화운동과 대중체육

활동, 권리옹호운동, 봉사복지활동과 밀착시켜나감으로 동포들자신이 주인이 되고 그들의 힘에 의하여 추진되는 위대한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

오늘 총련에서는 《새 전성기 애국애족모범창조운동》, 《지부를 애국애국의 성들로 다지기 위한 혁신운동》을 비롯하여 조직건설과 민족교육사업, 동포권리옹호를 위한 다양한 명칭의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본시기자 라 국

조국과 해외동포들의 권리

장철룡

리현숙

최성일

따사로운 해님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

래어라면 예기공전이 기다리고 자라나면 소년공전, 소년단야영소들이 어서 오라 부르는데,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 따듯이 보살펴주는 공화국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의 천국이라 부르곤 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있는 공화국이어서 경제는 명승지, 명당자리마다에는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아이들의 보금자리들이 솟아나 행복의 노래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올해만 보아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연풍호소년단야영소, 장차산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이서 첫기 아이들 시작되었다.

야영이 한창인 지금 그 어느 야영소에 가보아도 등산, 체육, 예술활동, 리스실습 등 다양한 야영활동을 통하여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창조능력, 건장한 체력을 겸비한 끝끝한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학생소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고 야영생활에 신비로움과 흥미를 느끼는 웃음소리가 들을 수 있다.

공화국의 멀리 북변에, 바다가마을이나 두메산골에 집을 둔 아이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아이들까지도 엄마롭고 친근하게 부를만큼 따뜻한 정이 흐르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몇년전 여기서 행복넘친 야영생활을 보내며 어느 나라의 야영장이든 친심의 목소리가 되새겨진다.

《이곳은 신데렐라의 꿈이 실현된 곳이다. 모든것이 정되고 마음에 꼭 들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조선에 아이들의 (오아시스)가 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것은 인류의 리상이 아닌 조선의 현실이다.》라고 격정을 터놓곤 했다.

동해의 명승 현산시, 여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현지지도의 발자취를 새기신것은 주체48(1959)년 6월이었다.

강원도로 말하면 지난 세기 조선전쟁때 전선지역이었으므로 어느 도보다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중에서도 현산시는 미제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함께 함포사격까지 받아 그야말로 재더미로 되었다.

전쟁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현산시를 하루빨리 복구하여 아이들을 위한 야영소를 큼직하게 지어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현장의 벼들, 한그의 세멘트가 귀중한 때였지만 포화에 그슬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노래부터 달아주자고 하시며 야영소건설에 막대한 국가자금을 돌려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에 받들

려 야영소는 빠른 기간에 일떠서 1960년 8월 첫 입소식을 하게 되었다.

이듬해 9월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송도원의 명당자리에 소년단야영소를 지으려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제일 좋은것은 마땅히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셨다.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속에 강원도소년단야영소(오늘의 12월6일소년단야영소), 평양시묘향산동산소년단야영소, 석암소년단야영소, 연풍호소년단야영소들이 솟아났으며 국가의 부담으로 해마다 활기를 띠고 운영되었다.

나라의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도 중단함이 없이 운영되어온 소년단야영소들이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었던 주체82(1993)년 3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세계적인 야영소로 웅장하려 하게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돛배모양의 건축형식을 자랑하며 번듯하게 지어줄 야영소를 만족 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다가 야영소 건설하는 데 거액의 자금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한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고 당에서 마음먹고 어린이들에게 주는 소년단야영소인데 아까울것이 없다고, 현대적인 큰 소년단야영소를 어린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었다.

야영소에 대한 현지지도는 마치신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시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노래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 유영한 맑은 바닷물에 생생한 웃음의 향기를 맡고 있는 아이들은 야영소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나온 노래구절이리라고 뜨겁게 외우시며 그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마음쓰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에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었다.

한평생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해님의 모습으로 간직하도록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배려에 의하여 함북도 북부지역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야영을 왔던 무산군의 한 학생이 쓴 일기의 구절이 있다.

《경애하는 아버지 수령님! 철부지인 절 용서해주십시오. 처음엔 난 막 울었습니다. 2학년, 3학년 누나, 형님들만 야영갔기때문입니다. 난 왜 아직 안갔을까요? ... 그런데 경애하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릴 위

해 또다시 야영을 조직해주셨을 때 난 너무 좋아 (만세! 나도 야영간다!) 라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정말 아버지수령님의 품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어린 학생이 일기장에 쓴 이 소박한 진정의 글줄에 어떤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가.

주체105(2016)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북부지역의 초급중학교 학생들 가운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에 참가하지 못한 수백명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시었다.

야영소로 떠나는 아이들을 보며 부러워했던 그해들의 모습이 가슴에 아프게 파고드는듯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돌려보시며 진중하신 어조로 북부지역에 있는 초급중학교학생들 가운데 이번 야영에 참가하지 못한 대상이 670여명 되면 올해에 야영을 한기 더 조직하여 그들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야영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호열, 아이들의 정열로 더욱 희한하게 개건현대화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9년전 4월 준공을 앞둔

원수님께서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5월 2일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아이들의 추수경기도 보아주시었고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축하공연과 야영소의 밝아늘어터져오르는 축포도 그들과 함께 보시며 온 하루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아이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바치신것은 이날만이 아니었다.

평양시묘향산동산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어느 일요일에도 야영생들이 등산활동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야영생들을 꼭 만나보고 가자고 하시며 반시각나마 기다려주시었고 삼지현학생소년단과 교직원들이 있겠는데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하시면서 그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기다리시어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이다.

어찌 이뿐이랴.

사생결단의 험로역경을 헤쳐서 후대들이 50년이건, 500년이건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는 념원과 결사의 헌신이 그대로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 전기를 안아왔고 후대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의 재부를 마련해주시려는 그의 원대한 리상과 포부가 기적과 변혁의 창조물들을 해마다 안아올리고 있다.

우리 당이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앞에, 인민우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다는 그이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조국의 명당자리에 무지개처럼 맑게 웃은 옥이원과 예유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아동병원이며 야영소, 소년궁전들, 학교들에서 아이들이 세상에 부러울것 없이 행복을 꽃피우며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나고 있다.

아무리 모진 풍파가 몰려오고 만년이 걸려도 이 땅에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담란 발구름소리가 끊이지 울리고있으니 실로 공화국의 앞날은 얼마나 양양하고 무궁장광한가.

한몸이 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후대들이 걸어갈 길에 바위처럼 굳어 버려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품관을 지니시고 자신의 심신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셔 영고한 후대사회의 력사는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참다운 정치

강산에 차넘치는 청신한 공기라도 같이, 봄날의 따스한 햇빛과도 같이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속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것이 있다.

인민위천!

바로 여기에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 있다.

조선로동당은 장장 70여년간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이 바라는 일이란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무조건 해내는것을 당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에 충실해왔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라는것,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평생 구원하여오신 좌우명이고 정치철학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조선로동당은 지난날 천대와 반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인민대중의 지위와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놓았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리와 영광을 떨쳐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삼고 당과 국가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는 한평생 인민을 하늘로 떠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강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위천의 력사를 변함없이 즐기며 이어가려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본래가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최고정화를 이루고 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해오시는 혁명정도의 원칙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해 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어떤 험한 길도 기꺼이 걸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어할수록 그들중으로 더 친근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 땀 흘리는 문제, 아파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인민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고통을 함께 해나가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해 겪는 고생을 용감한것으로, 더없는 보람과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며 위대한 인민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다.

국가와 부흥발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업종별 도전과 적년들이 중첩되었지만 조선로동당은 불굴의 투쟁과 헌신적인 복무로써 조국과 인민을 지키고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에 충실하였다.

인민의 운명을 역적으로 지키기 위해 밀고만 전진길과 위협천만만 화신길들을 끊었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호자, 혹독한 자연의 광란으로 사소해가나만 인명피해가 발생할세라 마음조이며 긴긴 밤을 지새우신 자애로운 어머니, 천애한 방편전쟁의 나날 약품구입때문에 애로로 겪을 인민생활상으로 마음쓰시며 깊은 밤 평양시반의 약품들을 돌아보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앓고있는 지방의 인민들을 위해 가정에서 친히 마련하신 약품들도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우러리며 온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절감한것은 그처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위대한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다는 철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에 떠받들려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과 문화휴식처들이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로,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원칙, 영원한 국책으로 되고 있다.

인민위천!

이 는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려는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신조이며 영원한 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의 령도를 받든 조선로동당이 있어 공화국인민은 무궁한 영광과 행복을 누려갈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은주

수필 리상에 대한 생각

사람은 누구나 잘살기를 바란다. 자신과 가정은 물론 나아가서 자기가 몸담고 사는 사회가 남들보다 잘살고 우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노력한다고 하여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소박한 꿈마저 없이 라락과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내가 사는 이 땅, 우리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리상과 오늘에 대한 생각을 세간난 자식의 집을 찾아가는 길에 깊이 해본적이 있다.

마칠전 일요일, 휴식일이 며 아들이네가 살고있는 화성거리의 살림집을 찾았던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앞에 절음을 멈추었다.

거리를 따라 시린스레 뻗어간 아스팔트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현대적인 건축미를 갖춘 살림집에 행복의 주인들이 보금자리를 편 주택지주라면 그 맞은편은 건설중인 고층아파트들이 일떠서 자기의 모습을 완연히 드러낸 화성지구 2단계 건설장이었기때문이다.

내가 걸고있는 도로에서는 기쁨과 행복의 웃음을 얼굴에 함뿍 담은 주민들이 오가고 건너편에서는 그 기쁨과 행복을 창조해가는 건설자들의 작업모습이 나로 하여금 류다른 감회에 젖어들게 했다.

문득 화성거리에 입사한 아이들의 집을 처음 찾아갔을 때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내보이며 눈물이 그렇게서 하던 머느리의 말이 가슴을 쳤다.

《우리같은 신흥부부한테도 이런 훌륭한 집이 차례질 줄은 현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원수님은 인민

의 꿈과 리상을 최상의 현실로 꽃피우시는데...》

리상이란 사람들이 앞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장 높고 훌륭한 희망이며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기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리상을 실현하는것처럼 긍지롭고 행복한것은 없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모든 이 땅에서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들은 어떻게 실현되고있는것인가.

머느리의 격정어린 말을 듣는 나의 뇌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령도의 령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몇해전 뜻밖에 큰불피해를 입은 은파군 대청리를 찾았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음쓰신것은 한해농사에 대한 문제만이 결코 아니었다.

태풍과 큰물이 휩쓸어간 집보다도 나라의 쌀독을 더 걱정하며 거역히 일떠선 우리 인민들,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장 훌륭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마련해주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함북도의 북부지역을 찾았을 때

를 택하고 있다.

피리사회의 어느 주민이 《자식에게 미안해도 이 저 주로 온 땅에 그의 미래를 맡길수가 없어 함께 떠난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어린 자식과 함께 목숨을 끊은것은 이 사회야말로 리상과 꿈은 고사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강그리 유린말살하는 세계 최악의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인민의 리상이 바라던것보다 더 황홀한 현실로 펼쳐지고 그 현실이 더 큰 리상을 부르는 내 나라, 우리 인민모두를 참다운 리상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고는 누구신 현실이 시간을 다루며 펼쳐지고 있는 내 조국.

절세내외를 모셔 기쁨속에 마중가는 공화국인민의 미래는 얼마나 더 환희로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나의 눈앞에는 화성거리의 희한한 모습과 함께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할 조국의 모습이 안겨왔다.

정성남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은 천년속적 일본

치떨리는 한반도 조선인대학살만행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많은 것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일제가 조선민족을 상대로 감행한 치떨리는 범죄이다.

그 범죄만행들 가운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간토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계기로 재일조선인들을 집단적으로 대량학살한 만행도 있다.

1923년 9월 1일 정오무렵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간토지방에서는 일본력사상 최대의 지진(리히터척도 7.9)이 일어났다. 돌발적으로 일어난 이 대지진은 화재까지 동반하여 간토지방의 대부분 지역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었다. 지진으로 하여 70여만 명의 살림집이 파손되고 많은 공공건물들이 파괴되었으며 14만여 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났다.

간토대지진은 해외청정에 편승되어 날뛰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섬나라의 민심을 극도로 소란케 하였다. 대지진으로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진피해를 가시기 위

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정부에 불만을 품고 항거하기 시작하였다.

날로 높아가고 있던 반정부적 감정을 탄압으로 돌림으로써 지진으로 인하여 조성된 심각한 사회적정치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획책하던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각지에 불을 질러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 《조선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친다》는 등의 류언비어를 퍼뜨려 민족적대립감정을 고취하였다.

9월 2일 왜왕은 이른바 《죄령》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제는 한때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을 하면서 조선사람들을 장악하고 학살한 내무대신 미즈노 렌파로를 시켜 지진 후나바시해군부전척을 통하여 전 일본에 《조선인박멸》을 긴급명령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군대와 경찰, 재향군인, 자경단, 청년단, 우익반동단체들과 불량배들이 동원되어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대증적학살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을 보기만 하면 짜죽이고 찢어죽이고 목을 매달아죽이고 배를 갈라죽이고 눈을 빼고 사지를 찢어죽이고 불태워죽이는 등 온갖 야수적방법

으로 재일조선인들을 다치는대로 학살하였다. 지어 어린이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목을 잘라버렸으며 사람들을 판자벽과 기둥에 비끼러매놓은 다음 칼로 란도질을 하고 톱으로 팔과 다리를 잘라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요코하마에서는 250명의 조선동도들을 태운 배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다음 바다에 침몰시켜 집단학살하였다.

일제는 재일조선인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학살하기 위하여 골목마다 검문소들을 만들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놓고는 조선사람들이 방을 열어하는 《5인 55전》을 일본말로 시켜보면서 조선사람들을 골라내어 그 자리에서 학살하였다.

참으로 일제의 조선인학살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무도하고 참혹한 것이었다.

사이다마현의 한 경찰서에서 있었던 조선인학살만행에 대하여 한 일본인경찰은 《참살정형을 도저히 입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경찰서구내에 피마타를 이루었으며 장화를 신지 않은 것 같은 형편이었다》라고 그때의 참상을 고백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극악무도한 만행

으로 학살된 재일조선인들은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밝혀진데 의하더라도 무려 2만 3000여명에 달하였다. 일제야수들은 저들의 조선인대학살만행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체들을 집단적으로 매몰하거나 석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엄격한 보도관제를 실시하는 한편 도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사람들을 한곳에 수용하고 출입을 단속하였다.

간토대학살만행이 있는 때로부터 10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날도 섬나라족속들은 간토대지진 당시 지진 치떨리는 조선인대학살만행에 대해 《학살에 관여한 적도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떠벌이며 뻔뻔스럽게 돌아대고있다.

과거의 죄악을 추호도 반성하지 않는 섬나라것들의 속에는 폐망에 대한 복수심과 끈질긴 제침야망이 들어있다.

오늘 갈수록 더욱더 로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외교와 군국주의부활책동, 제침야망은 섬나라족속들이 피로 얼룩진 침략살육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려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하였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세계의 생태환경이 파괴되든, 인구가 핵재난을 당하든 아랑곳하지 않는 섬나라것들의 본태를 그대로 드러낸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핵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스트론튬, 루테튬, 트리튬 등의 방사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사능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게 되면 자연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어떤 파괴적후과가 미치게 되겠는가는 불보듯 뻔하다.

하기에 지금 국제사회는 일본의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핵

오염수방류를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특히 아시아나라들은 일본산수산물을 비롯한 일본상품의 수입금지조치와 불매운동을 벌리는 등 섬나라것들의 극악무도한 망동에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그러나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섬나라족속들의 반인륜적범죄를 적극 비호두둔해나서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피담》으로 몰아붙이다 못해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반대세력과 싸울수밖에 없다》고 뇌까리며 섬나라것들의 망동을 변호해나서

고있다.

피리저리 각계층이 일본이 국제사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핵오염수방류강행을 빼지 못할것은 일본정부의 대변인, 돌리리, 방패막이 역할을 스스로 맡아해온 윤석열(정부) 때문이다. 피담선동을 운운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윤석열이야말로 친일역적, 투등매국노이다. 태평양은 윤석열과 기시다의 핵쓰레기하수구가 아니다. 일본의 폐악을 방치한 윤석열은 철저한 공범자이다. 윤석열(정부)와 기시다정부의 명백한 국제범죄, 테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태평양에 버려져야 할것은 핵오염수가 아니라 반인륜적범죄를 서슴지 않는 일본과 윤석열패당이라고 하면서 반일, 반윤석열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인류에 대한 핵테로- 핵오염수방류



관리가 낳다

지금 저 피리지역은 핵오염수관리로 하여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관리입니다. 언제부터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지독한 생명을 쓰던 섬나라것들이 끝내 8월 24일부터 그 너절한 핵오염수를 바다에 흘러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그 핵오염수에 입과 코를 맞대고 살아야 할 형편이니 이게 어디 보통 관리입니까.

지금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있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투기는 인류에 대한 테로행위!》,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한다!》, 《핵오염수공범 윤석열은 퇴진하라!》

날이 갈수록 이 분노와 증오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관리가 범람하여 사람 못살 땅에 오염수관리까지 겹치니 정말 사람 죽이는 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있는한 관리가 그칠새 없다는 민심의 주장이 천만번 지당하다고 봅니다.

꿈아불가요? 그 골치덩어리가 벌려놓은 전쟁연습때문에 매일과 같이 전쟁관리, 윤석열의 무지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으로 초래된 각종 재해로 하여 불란리에 물란리 또 윤석열의 친재벌정치와 민생외면으로 배가되는 물가관리와 실업관리, 《등록금대란》과 《의료대란》.

경찰대 해먹던 확실곳은 그 객기로 득세의 칼날을 때 없이 휘둘러대어 독재관리, 해외에 나가선 입건사, 몸건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망신을 사서 하는 외교관리입니다.

그런데 섬나라의 핵오염수방류마저 어쩔쩔 목인하며 일본의 대변인, 돌리리노릇에 등이 달아있으니 오늘은 피리지역이 핵오염수관리로 죽어가 뿔뿔해지고있는것입니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도 《일본의 핵오염수방류결정은 기시다정부의 무책임과 윤석열(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명백히 까맣혔습니다.

그리고보면 핵오염수관리만이 아닌 재앙과 고통, 죽음과 공포를 불러오는 그 모든 관리는 곧 윤석열제왕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새로운 새로운 란리를 그칠새 없이 일으키는 이 망종을 두고서야 어떻게 편안과 안정을 바라겠습니까.

분노한 민심은 이를 갈며 육속합니다.

각종 관리에 핵오염수관리까지 일인 윤석열패당을 향해 저주와 규탄, 심판의 합성을 매일과 같이 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윤재앙때문에 관리가 겹치고 쌓여 언제한번 평온한 날이 없고 무던히도 소란스런 피리지역에서는 관리가 어쩔 수 없는, 피할수 없는 숙명인가봅니다.

김대룡

《일본은 핵오염수해양투기를 중단하라!》, 《핵참화를 몰아오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최근 피리지역에서 인류를 핵참화속에 몰아넣는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와 그에 동조한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규탄하는 투쟁이 날로 격렬히 전개되고있다.

지난 8월 25일 《일본 핵오염수해양투기중단추진 경남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 한 피리지역 주민은 《2023년 8월 24일 13시 03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슴아픈 역사의 기록이 될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핵오염수방류를 막지 못했으면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고 주장하였다.

청소녀들을 대표한 다른 발언자는 핵오염수방류도 총격적이지만 윤석열(정부)의 태도는 더 충격적이다.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오염수방류반대를 무조건 《피담》으로 몰아붙이는 이 《정부》가 대체 왜 필요한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였다.

피리 《민주로총》 경남본부장은 연설에서 윤석열(정부)는 전 세계 생명을 파괴하는 일본의 무도한 침략과 손을 잡고있다. 대대손손 지켜나가야 할 환경의 심장인 태평양에 독침을 꽂았다. 윤석열은 그 침략에 말 한마디 못하고있다고 질규하였다.

한편 8월 26일 서울에서는 《일본 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의 주최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후쿠시마오염수투기철폐》, 《윤석열(정부) 규탄》 등의 구호를 추켜든 5만명 이상의 각계층 피리지역 주민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일본의 오염수방류는 전인류적인 사기극이며 현재를 위해 미래를 죽이는 악랄한 선택이다. 일본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 핵오염수방류는 태평양연안에 살고있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 전쟁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살육하였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일으키려 한다고 하면서 섬나라것들을 규탄하였다.

또한 일본의 핵오염수해양투기는 바다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에 빠뜨리는것인데 이를 반대해야 할 윤석열은 오히려 둘러러리적으로 동조하고있다. 전세계적제약을 몰아온 책임을 윤석열에게 물을것이다. 윤석열실권의 시기는 더욱 가까워질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목인비호해나서는 윤석열역적패당을 강력 단죄하였다.

이어 대회참가자들은 핵오염수방류를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하는 초불행동과 시국선언을 조직하였으며 《일본이 핵오염수투기를 중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일본의 핵오염수투기는 태평양에서 살고있는 수많은 생명체와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인류에 대한 테로행위이다. 핵오염수방류도 문제이지만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에 대한 민중의 우려를 《피담》으로 몰아붙이고 《무지몽매한 의견》으로 매도하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광고전집물을 만들어 내뿜는 윤석열(정권)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태평양은 일본의 핵오염수쓰레기통이 아니라고 밝히고 일본이 핵오염수투기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한다!》, 《핵오염수공범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웨치며 투쟁문거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윤석열역도퇴진을 위한 제54차 초불행회와 시위도 진행되었다.

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층은 《일본은 핵오염수해양투기를 중단하라!》, 《핵참화를 몰아오는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웨치며 핵오염수방류를 강행한 일본과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미국, 윤석열역도를 규탄하는 초불시위를 벌렸다.

